

# 退溪學의 계보적 연구\*\*

李 家 源\*

• 目 次 •

서 언

I. 薰陶弟子

1. 嶺南學派

2. 畿湖學派

3. 家學淵源

II. 私淑諸人

결 어

## 서 언

학자에게는 학문이 가장 고귀한 것이요, 학문에 있어서는 또한 학통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물론 위에서 師承이 없이 높은 학문을 창조한 聖哲이 없었음은 아니었으나, 위로 싱싱한 학문의 오리를 口傳·心授로 친히 이어받고 아래로 수많은 得意제자에게 물려 주었다면 이에서 더한 영달은 없을 것이다.

만일 학자에게 이러한 학통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누구에게 받았으며, 또 누구에게 물려 주었는지를 알 길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학통을 밝히려면 첫째 계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요, 또 계보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가장 공명하고도 치밀한 서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에 어떤 집필자가 자기의 편견을 앞세워 사실에 어긋났다거나, 또는 齊東의 野說을 나열했거나, 또는 과거의 정치적인 당론을 맹종하여

\* 안동교육대학 조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7호(1983) 게재논문

그 학술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소홀히 다루는 한편, 인적자원의 항배에 따라 取捨를 함부로 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輓近 몇 10년 이래 퇴계 이황(1501~1570)선생의 學에 대하여 관심이 점차 드높아 우리나라 학계는 물론이요, 이웃나라인 일본·중국에 있어서도 각기 연구기관이 列立되었으며 또 遠西인 미주에도 진출되어 장차는 구라파에 이르기까지도 뻗어갈 기운이 점차 성숙되어감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퇴계학의 학통을 밝히는 계보적 연구는 더욱이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의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찍부터 느낀 바 있는 필자는 지난 1973년에 《退陶弟子列傳》을 쓰기로 하여 77년에 이르기까지 《퇴계학보》에 연재하였으나 자료의 미비로 말미암아 겨우 高峰 기대승, 寒岡 정구, 西厓 류성룡, 栗谷 이이, 賁趾 남치리, 月川 조목, 鶴峯 김성일, 牛溪 성혼, 艮齋 이덕홍 등 9家に 그쳤으니, 이는 하나의 未成書일뿐 아니라 그 순위에 있어서도 학문적이나 또는 연령적인 배열도 아니요, 자료가 잡히는 그대로이다.

이제 이 계보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자료가 의연히 갖추어지지 못하여 커다란 난관이 없지 않다. 그렇다 해서 이 공작을 언제까지나 연기할 수는 없으므로 역시 자료가 잡히는 대로, 필자가 아는 범위 안에 그치지 않을 수 없음이 또한 꾸밈없는 충정이다.

## I. 薰陶弟子

퇴계의 학통을 살펴보면 대개 두 갈래가 있었다. 종전의 문헌에는 영남학파니, 기호학파니 하여 하나의 지역적인 계열로 나누었으나 이런 지역적인 나눔이 있기 전에 당일에 친히 薰陶를 입은 제자와 후세에 私淑한 諸人을 함께 수록하여 그 분포된 계열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가 생각된다. 이에 먼저 훈도제자에 관하여 서술하되, 편의에 따라 영남·기

호의 두 학과와 家學의 연원으로 나누고 아울러 계보도를 붙여 흐름을 밝히기로 하였다.

## 1. 영남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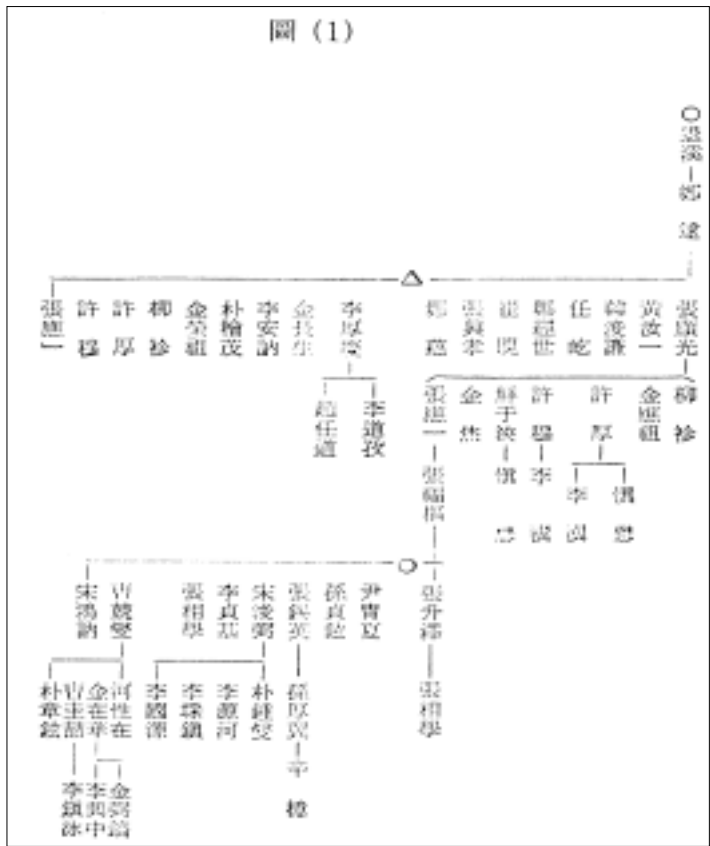
### 1) 賁趾 南致利

분지 남치리(1543~1580)는 안동부 法藏洞에 살고 있었다. 天資가 粹美하고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특히 역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퇴계에게 獎誦를 받았고 일찍이 《心經》과 《啓蒙》에 대한 질의와 서문이 빈번하였다. 뒤에 퇴계의 遺著 《啓蒙傳疑》과 《宋季元明理學通編》을 교정·간행하여 斯學의 천명에 정성을 기울였다. 다만 그의 天稟과 기상과 享年이 길지 못한 것이 흡사 孔門의 안회와 같으므로 동문의 학자들은 그를 가리켜 『退門의 顔子』라 일컬었다. 위 낙 연수가 짧고 그의 학문을 계승할만한 제자가 없어서 遺著 《賁足文集》이 전하기는 하나 역시 간행하기 전에 이미 散逸된 것이 많았다.

### 2) 寒岡 鄭述

한강 정구(1543~1620)는 星主 枝村에 살고 있었다. 天資가 豪邁하고 지기가 원대하였고 일찍부터 과거를 폐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博古·通今한 지식을 얻은 뒤, 오로지 저서에 정력을 기울였다. 퇴계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그의 학문이 가장 순수하고도 오묘하였으므로 그를 가리켜 『退門의 曾參』이라 일컬었다. 퇴문의 諸賢 중에 고봉 기대승이 四七·理氣의 설에 고매하다면 한강은 《심경》과 예학에 가장 조예가 깊었다. 그의 撰著 또는 편집한 저적과 논고는 42종에 이르러 실로 地負·海涵적이었으나 불행히 그의 72세인 1614년 甲寅에 화재로 인하여 烏有로 돌아갔었다. 그 당일에 한강은 『하늘이 나를 망쳤어, 하늘이 나를 망쳤구료.』하고 통탄을 거듭하였다. 이제 다만 그의 《寒岡文集》과 이외에 改撰한 《五先生禮說分類》와 新撰한 《禮記喪禮分類》·《廣嗣續集》·《五服沿革圖》·《一蠹實記》등 몇 종이 남아 있을 뿐이다. 『天喪予』의 비탄은 실로 천후의 독자로 하여금 감개롭게 하였다.

한강은 비록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그 학문과 덕망이 通國에 이름 높았으므로 벼슬이 사헌부 대사헌에 이르렀고 또 동·서의 분당에도 참여하지 않은채 초연한 자세를 지녔으므로 그의 제자는 통국에 列立되어 旅軒 장현광, 愚伏 정경세, 東溪 정운 등의 영남파의 학자는 물론이요, 沙溪 김장생, 東岳 이호민, 眉叟 허목 등과 같은 비영남계의 학자도 없지 않았고 특히 그의 예학은 우복과 사계에게 끼쳐 준 영향이 지대하였다.



### 3. 西厓 柳成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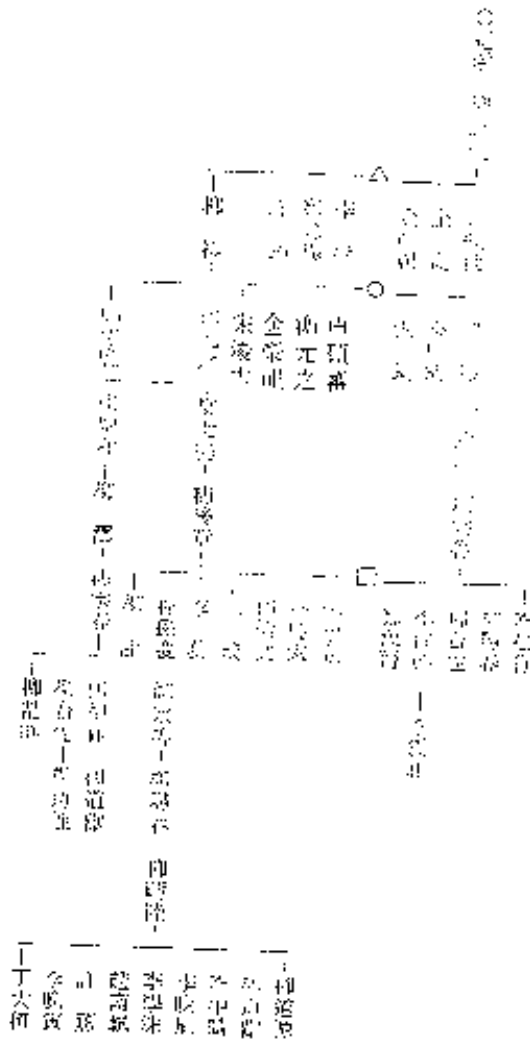
서애 류성룡(1542~1607)은 안동 하회에 살고 있었다. 서애는 19세에 군위 남계에서 徘徊·吟詠하다가 느낀 바가 있어 『나로 하여금 聖門에 올라 학문을 배우게 된다면 端木氏의 위치에는 이를 수 있을 것이야』하고 喟然히 감탄하였다. 단목씨는 곧 孔丘의 제자 端木賜를 이룬다. 그가 21세에 비로소 도산에서 퇴계를 배알하고 몇 달 동안은 머물렀을 때, 퇴계는 『이 아이는 하늘이 낳은 인재인 바, 반드시 大儒가 될 것이야』하여 크게 칭도하였다. 그 뒤 서장관으로 명경에 갔을 때, 그들의 태학생과 명조의 학자를 논하여 『白沙는 見道가 정하지 못하고 陽明은 禪學에서의 얼굴을 바꾼 것인 만큼 설문청의 한결 같이 올바름만 같지 못할 것이야』하여 明士 吳京의 敬服을 받고 퇴계의 <성학십도>를 내어 보이었다. 퇴계가 易箒한 뒤에는 《퇴계문집》을 編次하였고 조정의 대신 자리에 오른 뒤에 수많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였으나 당론의 携貳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 많았으며 1592년 임진에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 병조판서로서 군무를 총괄하였고 급기야 宣祖王이 臨津으로 播遷하여 도승지 이항복이 의주로 옮겨갈 것을 제안했을 때 서애는 이를 극력 반대하여 『 옮겨갈 것, 大駕가 東土에서 한 걸음만 떠난다면 조선은 우리의 소유가 아닐 것』이라 하여 마침내 서애의 의견을 따랐다. 서애는 개성부에 이르렀을 때 영의정에 올랐으나 申礪 등의 構誣에 의하여 곧 파직되었다가 다시금 叙用되어 풍원부원군이 되고 의주에서 啓辭를 올려 時務를 條陳하였고 정주에서 또 筭子를 올려 시무를 條陳하였다. 다음해 93년에는 병사의 훈련과 화포의 제조 및 훈련도감의 설치를 청했으며 다시금 영의정에 올랐고, 다음해 94년에는 湖西의 寺社와 位田을 훈련도감에 귀속시키고, 충주의 城砦와 鳥嶺의 關과 屯田을 설치하고 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시무를 조진하였고, 97년에는 통제 이순신에 관한 構誣에 따라 여러 차례 사직하였고, 95년에는 파직되어 남하한 뒤 또 정인홍의 구무에 의하여 관직이 삭탈되었다. 1600년에 퇴계의 장손 몽재 이안도의 《草記》를 刪定하여 《退溪先生年譜》

를 편찬하고 1603년에 《愼終錄》·《永嘉錄》·《喪禮考證》 등을 저술하고 1606년에 <知行說>과 <知行合一說>을 써서 왕수인의 설을 논박하였다.

서애의 저서는 《서애문집》과 《懲愆錄》 밖에도 미간된 것이 10여 종이 남아 있다. 그의 학문·문장과 경세의 대략은 실로曠古에 드물었으며 山河再造의 巍勳은 또한 師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서애의 문하에는 수많은 석학·문호와 정치가가 배출되었다. 愚伏 정경세, 蒼石 이준, 喬山 허균, 鶴沙 김응조 등이 모두 당시에 이름이 높았다.

圖(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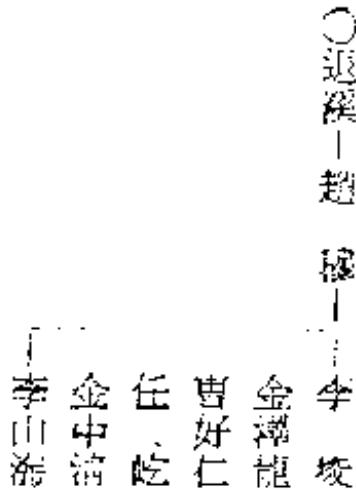


## 4. 月川 趙穆

월천 조목(1524~1606)은 예안 월천리에 살고 있었다. 월천은 12세 때부터 퇴계의 문하에 올라 가장 오랫동안 薰炙을 받은 노제자이다.

월천은 퇴계가 易箒한 뒤에 도산서원의 건설에 그 규모와 예식을 모두 맡아 책정했으며 《退溪先生文集》의 수집·간행에 정성을 다했고 퇴계의 手簡을 糝褙하여 《師門手簡》이라 題籤하여 존봉하고 <言行總錄>을 써서 스승의 도학이 주희 이후의 一人임을 밝혔다. 벼슬은 공조 참판에 이르렀고 평일에 저술한 문헌이 적지 않았으나 병란에 많이 遺逸되고 《月川文集》이 겨우 公刊되었다. 그 뒤 도산서원에 從享되었고 문인 중에 이름 높은 선비가 많았다.

## 圖 (3)





## 5. 鶴峯 金誠一

학봉 김성일(1538~1593)은 안동 금계에 살고 있었다. 학봉은 일찍 부터 퇴계의 훈도를 받아 心悅·誠服한 제자로 일생에 스승을 높이고 도학의 퇴패를 근심하여 퇴계의 <聖學十圖>·《溪山雜錄》·《朱子書節要》·《自省錄》 등을 간행하였고 또 <退溪先生言行錄>을 써서 스승의 언행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때로는 도산을 찾아 시를 읊어 스승의 학덕을 추모하였다.

학봉은 일찍이 문과 출신으로 벼슬이 성균관대사성·홍문관부제학·첨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고 朝班에서는 직언으로서 『殿上虎』라는 이름을 얻었고 일찍이 통신부사로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 上使 황윤길과 다른 진술이 있었으므로 당시의 물의가 자못 분운하였으나 마침내에는 임란 때에 慶尙右道兵馬 절도사로서 창원으로 가는 도중에 招諭使의 제명을 받았고, 또 좌·우관찰로서 軍績을 세웠다. 저서에는 《學峯文集》이 세상에 전하였고, 문인에는 수많은 선비가 배출하였으며, 특히 연원이 繁衍하여 이조 후기 영남학파의 淵藪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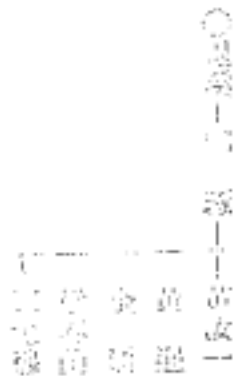
图(4)



## 6. 藥圃 鄭琢

약포 정탁(1526~1605)은 예천 고평에 살고 있었다. 약포는 일찍이 문과에 올라 宦道가 형통하였고, 임란을 당하여 扈從에 勞勳이 있었으며, 광재우·이순신·김덕령을 將才로 추천하였고, 明士 호환에게 글을 보내어 왜적의 政情과 방어의 책략을 논하였다. 약포는 당시 동서의 당론이 승장할 때에도 초연히 벗어났으므로 못 비방에 脫略되었다. 애연한 애국·憐民의 眞衷을 지녔으며 귀연히 亂代의 純臣이 되었다. 벼슬이 영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저서에는 《藥圃文集》이 公刊되어 세상에 전하였으며 오랫동안 국사에 분망하여 영재를 육성할 겨를이 없었으나 문하에는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 圖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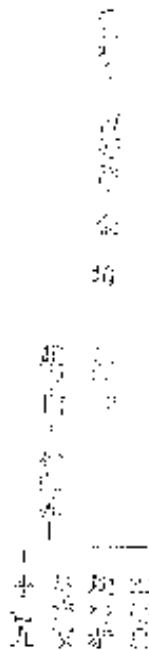


## 7. 芝山 曹好益

지산 조호익(1545~1609)은 영천 芝山에 살고 있었다. 지산은 일찍부터 宦業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여 역학과 병농 百家의 설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불행히 慶尙道事 崔滉에게 土豪로 몰려 관서의 강동에 유배되어 17년의 긴 세월을 허비하였으나 조금도 원망하는 뜻이 없이 行道와 育英에 전념하여 사풍이 크게 변하였으므로 선조

는 『關西夫子』의 네 글자를 써 내렸다. 임란 중에 서애 류성룡의 진언에 의하여 풀리어 의금부도사로 招募官을 겸하여 많은 공을 세웠고 그 뒤 영천으로 돌아와 산수에 소요하여 때로 달이 밝은 저녁이면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낭랑히 읊었다. 저서에는 ≪心經考異≫·≪家禮攷證≫·≪周易解釋≫·≪易象推說≫·≪芝山文集≫ 등이 전하고 문하에 潛谷 金堉과 같은 실학대가가 나가게 되었다.

圖 (行)



2. 기호학파

1) 栗谷 李珥

율곡 이이(1536~1584)는 파주에 살고 있었다. 율곡은 才思가 渙發하고 文辭가 淸警하여 일찍이 13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였고 19세에

출가하여 금강산에 들어가 불가의 妙諦를 깨달았으나 다음 해에 <自警文>을 쓰고 다시금 유가로 돌아와 23세에 비로소 도산에 나아가 퇴계를 배알하고 五律 한 수를 읊어 드렸을 때, 퇴계는 七律 한 수를 읊어 화답하였다.

그 밖에도 퇴계는 <李秀才叔獻見訪溪上>의 7언 1절, <李秀才見訪溪上雨留三日>의 7언 1절과 7율 1수, <贈李叔獻>의 7언 2절과 5율 1수가 있었는데, 그 憂道·愛才의 뜻이 洋溢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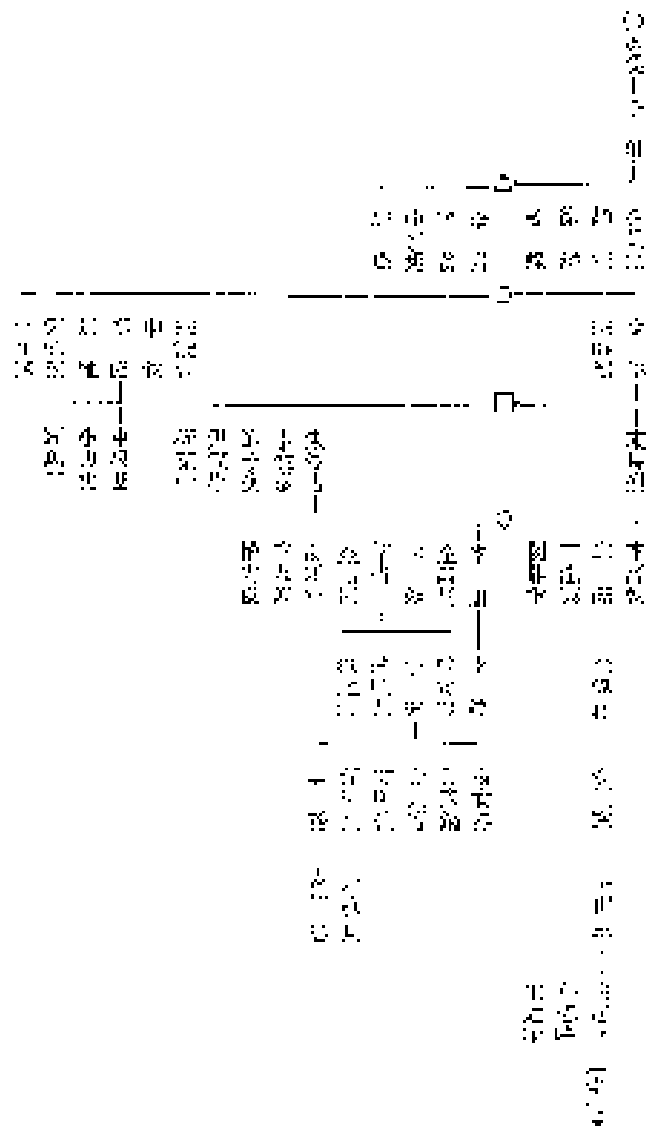
율곡은 또 <奉次退溪先生寄示韻>의 7언 2절이 그의 <瑣言>에 실려 있었는데, 그 回塗·改轍의 뜻이 藹然하였고, 또 퇴계에게 請益한 바는 《대학》·《중용》의 釋義, 4皓의 출처, <聖學十圖>의 釋義 등에 관한 것이요, 그의 <上退溪先生>의 別紙와 問目的 5편은 《栗谷全書》중에 실려 있었고, 퇴계의 <答李叔獻>은 《退溪文集》중에 모두 7편이 실려 있었다. 여기에는 진지한 스승의 기망과 정성어린 제자의 사언이 함께 실려 있었다.

그 뒤 퇴계의 易箒한 뒤에 율곡은 輓辭를 지어 슬피하고, 素帶로서 居外하였고, 또 제문을 지어 禮奠을 하여 蒼龜를 잃고 부모를 여윈 것과 같은 슬픔을 말하였으며, 또 퇴계의 請諭를 할 때 행장이 없이라도 시호를 내려야 함을 주장하였다. 문묘종사에 대하여서도 정암 조광조와 함께 하여야함을 주장하였고, 만년에 석담에 隱屏精舍를 세워 그 북에 장차 朱子祠를 짓고 정암·퇴계를 배향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율곡의 沒後 2년 丙戌에 諸生이 祠宇를 세워 遺志를 받들었다.

율곡은 四七論에 대해서는 고봉 기대승의 초론을 따랐다 해서 後儒의 많은 논박을 입어 마치 퇴계에게 크게 위배된 듯이 분운하였으나, 학문의 자유에 있어서 사제의 의견이 꼭 같았어야 함은 아니다. 다만 율곡이 동서분당에 있어서 당초에는 調停의 役을 시도했으나 마침내는 西에 기울어진 경향이 있었으므로 동인계 학자들의 숭앙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성호 이익과 같은 이는 『국조 이래로 경계를 논한 이로서는 오직 율곡 이공과 반계 유공이 있을 따름이다.』 하였으니, 이는 실로 공

정한 논평이다. 이에서 이른바 『經濟』는 곧 유가적인 사상이 정치에 구현된 經世·致用의 學을 이룸이다. 율곡은 명경과의 출신으로서 10년 사이에 淸班·華職을 역임하는 도중에 새로운 개혁적인 의견을 많이 제안하였다. 그의 유저 《栗谷全書》중에 실린 <東湖問答>은 개혁에서의 진실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었고 <聖學輯要>·<擊蒙要訣>·<四書諺解>·<周易傳義>·<近思錄口訣> 등은 모두 後學에게 貽惠한 바 컸었다. 벼슬은 이조판서에 이르렀고 문하에 수많은 학자와 정치가들이 배출하여 기호학파의 가장 鉅脈을 이루었다.

圖(7)



## 2. 牛溪 成 渾

우계 성혼(1535~1598)은 파주 우계에 살고 있었다. 우계는 일찍부터 율곡 이이와 막역의 교를 맺었고 36세에 비로소 퇴계를 서울에서 배알하였으나 일찍부터 퇴계를 숭앙하여 法門의 정당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하였고, <聞退溪先生棄官歸山>의 5월 1수에는 스승을 尊慕하는 情과 憂道·憂國의 丹衷이 애연하였고, 퇴계에게 聽松墓銘을 청하였으며, 퇴계에게 올린 편지가 2度に 이르렀으나 모두 遺逸되었음이 유감된 일이었다. 율곡과 이기설을 논하였는데, 처음에는 『퇴계의 설이 未瑩함에 비하여 고봉 기대승의 설이 명백함이라.』 생각했으나, 주희의 『或生或原』의 설을 읽고서 비로소 퇴계의 설과 부합됨을 깨닫고 棄舊從新의 뜻을 결정하였다. 벼슬은 좌참찬에 이르렀으며 저서에는 《牛溪文集》이 전하고 문인들은 대체로 그와 율곡의 兩門에 출입하였으나 그 뒤 당론을 달리한 뒤로부터 각기 존숭함이 달라 『栗·牛』와 『牛·栗』의 異稱도 있거니와, 한편에는 『靜·退·栗·牛』 또는 『靜·退·栗·沙·尤』라 이르는 동시에 한편에는 『靜·退·牛·栗』이라 하였다.







## 4) 高峯 奇大升

고봉 기대승(1527~1572)은 光州에 살고 있었다. 고봉은 일찍부터 탁월한 재질과 博聞強記의 학문을 겸하여 32세에 문과에 올랐고, 그 해에 퇴계를 서울에서 배알하고 제자의 예를 닦아 성리학의 오묘한 뜻을 질정하였는데, 특히 四七의 辨과 格致의 說에 정통하였다. 후학들은 『우리나라 성리학이 퇴계·고봉에 이르러 완성되었고, 퇴계의 수많은 문생 중에 고봉이 가장 득의제자라.』고 일컬었다. 대체 퇴계·고봉의 사칠논변은 여러 해 동안을 두고 중단과 계속이 거듭된 뒤에 당초에 서로 參差했던 것이 마침내는 爛漫同歸하였다. 고봉은 『스승에게서 받은 學問이 천지·부모보다 더하다』 하였고, 퇴계는 고봉에게 『英發한 氣와 棟梁의 具로서 絶學을 倡明할 수 있는 通儒』라 칭허하였고, 사칠논변에 있어서 때로는 고봉의 설을 취한 점도 없지 않았다.

고봉은 벼슬이 사간원대사간에 이르렀고, 저서에는 《高峯文集》·《兩先生往復書》·《兩先生四七往復書》·《論思錄》 등이 유통되었고, 문하에 수많은 학자와 정치가가 배출되었다.

## 圖 (10)



### 3. 家學淵源

#### 1) 蒙齋 李安道

몽재 이안도(1541~1584)는 퇴계의 장손이다. 몽재는 天稟이 순후하고 襟懷가 樂易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王考의 교훈을 받아 학문에 정진하였다. 일찍이 왕고의 명을 받들어 <聖學十圖>를 考訂하였고 퇴계의 《年譜草錄》 九冊을 草하여 서애 류성룡의 刪定을 거쳐 간행되었고, 遺書의 수집과 手墨의 보거와 家學의 계승에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荷谷 許篈은 몽재의 제문 중에서 『《중용》이 이룩되기 전에 闕里의 孫을 갑자기 잃었도다.』하여 몽재를 孔丘의 손자 孔伋에게 비하였다. 벼슬이 司醞暑直長에 그쳤으며 유저에는 《蒙齋文集》이 전한다.



2) 東巖 李詠道

동암 이영도(1559~1637)는 퇴계의 제3손이다. 동암은 어렸을 때부터 돈후함이 특이하였으므로 퇴계는 『뒷날 우리 家世를 綿遠할 자는 이 아이야』라고 칭도하였다. 壺峯 宋言愼의薦으로 出仕하여 임란에 충주 判官으로 목사의 직을 겸섭하여 兵糧을 公급하였고, 또 호조좌랑으로 龍灣에 이르러 經理 楊鎬를 도와 勞績이 있었으므로 接伴使 漢陰 李德馨이 奏達하여 政랑에 올랐고, 뒤에 元州牧使에 이르렀다.

圖 (12)



## II. 私淑諸人

이 『私淑諸人』이라는 말은 《孟子》의 <離婁>에서 처음 보이었다. 孟軻는 孔丘에게 친히 수업한 일이 없이 사적으로 그를 스승으로 숭앙하여 그 끼친 글을 읽어 자기의 몸을 착하게 했으므로 스스로 『私淑』이라 하였다. 그러면 이 『私淑』에는 지역의 간격이나 國籍의 동이에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私淑』은 『薰陶』에 못지 않게 고귀한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퇴계의 『사숙제인』으로서 愚潭 丁時翰, 星湖 李瀼, 茶山 丁若鏞의 세 大家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 1) 愚潭 丁時翰

우담 정시한(1625~1707)은 원주 법천에 살고 있었다. 벼슬이 침지 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유저에는 《愚潭文集》이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四七辨證>이 중요한 논저라 한다. 성호 이익은 <愚潭丁先生墓碣序> 중에서 『동방의 유학이 退溪李子에 더 盛함이 없으며 그 가장 用意한 것은 理氣의 辨에 있었으나, 甲乙의 논쟁이 있어 오른 듯 하면서도 그 참됨을 어지럽힘이 없지 않을 때에 선생이 <四七辨證>을 지어 확여히 바로 잡았다.』하였고 다산 정약용은 그의 <傍親遺事>에서 『우담정선생은 학술과 의론이 공정하고 理氣 四七의 辨에 있어서 紫陽과 退溪로서 준칙을 삼았으니, 대체 道統을 전함에 있어서 혹은 親炙로서 혹은 사숙으로써 하되, 오직 덕망을 귀중히 할 것이요, 名位로만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寒岡과 旅軒의 이후에 眞儒·醇學은 오직 선생 한 분이 있을 따름이다.』하여 우담은 사숙으로서 퇴계의 도통을 능히 이어 받았음을 밝혔다.

圖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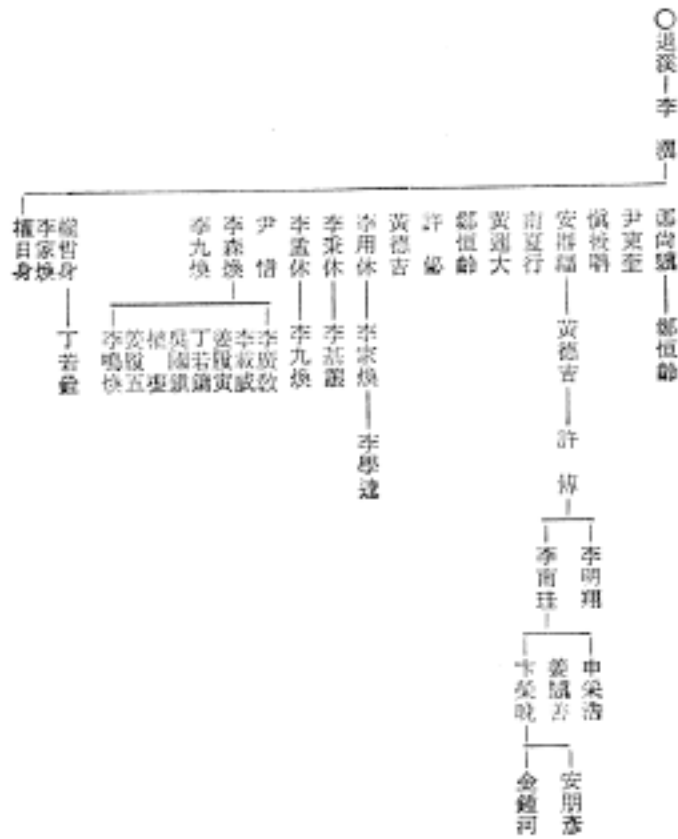
2) 星湖 李瀆

성호 이익(1681~1763)은 廣州 첨성리에 살고 있었다. 성호는 실로 이조 후반기 실학과 학자 중에서의 대가이다. 그의 학문은 직접 師承이 없이 자득에 있었다. 그러나 성리학에 있어서는 퇴계에게 사숙하였고, 經致學에 있어서는 觀雪 許厚, 太湖 李元鎮, 礪溪 柳馨遠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樊巖 蔡濟恭이 비로소 성호의 <墓碣序> 중에서 『퇴계는 寒岡에게 도를 전했고, 한강은 眉叟에게 전했고, 星湖는 眉叟에게 사숙했다』 하였으나 성호의 조카 貞山 李秉休는 그의 <貞山自序> 중에서 『퇴계의 학통이 영남에서는 鄭漢岡·張旅軒·鄭愚伏이 가장 나타난 이들이요, 영북에 있어 사숙으로서 학통을 이어받은 이는 오직 성호 一人이 있었을 뿐이다.』 하여 樊巖의 의견과 달랐다. 성호가 일찍이 眉叟의 <神道碑銘>을 지었으나 眉叟에게 학통을 운위한 것이 없고 다만 南坡 洪宇遠, 孤山 尹善道와 같은 선배로 추앙했을 뿐이다. 성호의 퇴계에 관한 저술은 《李先生禮說類編》·《李子粹語》 등의 專著도 있거니와, 사찰설에 있어서도 그의 《星湖文集》 중에 군데 군데 보이며, 심지어는 도산문인에 이르기까지 事蹟을 써서 후학에게 알렸다. 벼슬이 침지



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저서는 위에서 소개된 3종 외에도 三經·四書와 《小學》·《家禮》·《心經》·《近思錄》 등의 疾書와 《四七新編》·《僊說》·《藹憂錄》·《自卜編》·《觀物編》·《百諺解》 등이 있어 後學에게 많은 혜택을 끼쳐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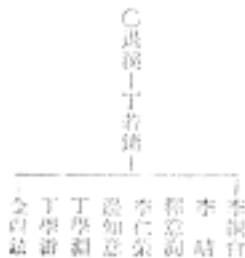
圖 (14)



## 3) 茶山 丁若鏞

다산 정약용(1762~1836)은 廣州 마현리에 살고 있었다. 다산은 22세에 經義進士로 曠菴 李檠과 더불어 理發氣發說에 대하여 條對하였을 때, 광암은 퇴계의 설을 주장하였음에 반하여 다산은 우연히 율곡의 설과 相副되었고, 그 뒤 <理發氣發辨> 중에서는 『퇴계는 세밀하고 율곡은 簡濶한 것이 다를 뿐, 아무런 서로 그릇됨이 없다.』 하였고 34세에 木齋 李森煥을 좇아 石巖寺에서 會講한 <西巖講學記> 중에서도 역시 『퇴계는 오로지 우리 사람의 性情上에 立論함이요, 율곡은 천지 만물을 총괄해서 말한 것인 바, 이 양자에 得失을 논할 것이 없지 않을까』하고 물었을 때, 木齋는 그렇지 않음을 간단히 설명하였고, 그 해 겨울에 金井察訪으로 부임하여 비로소 《退溪文集》 半部를 읽고서 <陶山私淑錄>을 써서 스스로 警省하였다 한다. 다산은 일찍이 가문적으로는 우담 정시한을 가장 숭앙하여 <傍親遺事> 중에서 우담이 사숙으로서 퇴계의 도통을 이어 받았음을 밝혔고, 또 그는 이미 15세 때에 星湖의 사숙제자로서 그의 學을 祖述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였다 한다. 그러면 다산은 애당초에는 우담과 성호를 통하여 퇴계를 숭앙했고, <陶山私淑錄>을 쓴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퇴계에게 사숙한 셈이다. 다산의 벼슬은 承旨에 이르렀고 천주교 사건에 연좌되어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 《與猶堂集》과 《茶山叢書》 등 地負·海涵의인 著籍을 남겼다.

圖 (15)



## 결 어

퇴계의 授受淵源은 다만 嶺·畿·湖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실은 전국 각 지역에 만연되어 몇 천년 이래 유학의 大一統을 이룩하였고, 또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퇴계학이 심어진 지 오래 되었음도 사실이다.

이제 퇴계의 훈도제자로서 《陶山及門諸賢錄》 중에 실린 분만 하더라도 무려 2백 60여명에 이르렀으며, 그 밖에 『私淑諸人』을 다 함께 계산한다면 그 숫자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만큼 많을 것이다.

이 論放에서는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미비로 말미암아 우선 손에 닿는대로 이러한 정도로 하나의 導論에 그치기로 하고 다음에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더 보충 또는 확장하여 斯學의 계보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을 스스로 기대하며, 또 장차 일본의 『私淑諸人』에 관한 계보도 이에 붙여 퇴계의 학맥이 해외로 뻗어서 열매를 맺은 그 역사를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